

SONDRE

Åshild Norun (2016)

어느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다. 갑자기 경찰들이 문을 두드렸고 그들은 오실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했다. 아들손드레가 죽었다는 것이다.

손드레는 검은 양복과 하얀 와이셔츠 차림으로 전철 터널안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했다. 자살이라는 것이다.

그토록 멀쩡하게 잘 지내던 아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다니, 오실은 일생일대의 충격을 받았다.

그녀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. 어떻게 그토록 의지력 강하고 유쾌했던 아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인가?

오실이 답을 찾으려는 절망적인 모색과정에서 비밀, 거짓말, 기만의 벽들에 부딪혔다.

그러나,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가지 사실이 있었다. 그녀가 반드시 손드레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.

SIRKEL FORLAG

kontakt@sirkelforlag.no